

## A-10

- 항공기명 : A-10
- 닉 네 임 : Thunderbolt
- 전 폭 : 17.53m
- 전 장 : 16.26m
- 전 고 : 4.27m
- 자 중 : 9,770 Kg
- 최대속도 : 706km
- 항속거리 :
- 탑승인원 : 1 명
- 개 발 사 :



튼튼하고 생존성이 높아야 할 것 그리고 전선에서 정비가 간단하도록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야 할 것 등으로 비행속도는 최소한 시속 740km정도로 정해졌다.

A-10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아주 잘 대응한 기체로서 전근대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CAS라는 단일목적에 아주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를 가지고 있다.

가느다란 동체와 직선형 주익과 하면 11개소의 하드 포인트에 8t이상의 병기를 탑재할 수 있고 엔진은 항속성과 정비성을 고려해 터보팬 2기를 동체 후부에 포드식으로 장착하였고 배기가스가 미익에 가려지게 함으로써 IR미사일에 대처하고 있다.

물론 록 피트, 연료계통의 중요부분에는 충분한 방탄이 실시되어 방탄장갑의 중량은 자체중량의 17%에 달하고 있다.

고정무장은 기체와 병행해서 개발된 GAU-8/A 30mm 개틀링포로, 탑재탄수는 1,350발로 대단히 많으며 특히 대전차 공격에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양산형인 A-10A는 1975년 11월부터 공군에 인도되기 시작했고 1977년 6월에는 최초의 실전부대인 354TFW가 편성되었고 1983년 713기로 생산이 종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79년에는 복좌로 개수된 야간/전천후 작전형 (N/AW)의 테스트가 실시되었으나 실용화되지는 않았고 1980년대 후반에는 일부의 기체가 FAC(전선항공통제)임무를 맡는 OA-10A로 개칭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LASTE(저고도안전/조준강화)개수가 행해졌지만, 초기생산 기체는 서서히 퇴역하고 있는 중이다.

## Nanchang A-5

- 항공기명 : A-5
- 닉 네 임 : Nanchang
- 전 폭 : 9.70 m
- 전 장 : 16.26 m
- 전 고 : 4.51 m
- 자 중 : 6,500 kg
- 최대속도 : 1,210 km/h/SL
- 항속거리 :
- 탑승인원 : 1
- 개발사 : Nanchang(China)

A-5는 중국이 라이선스 생산을 했던 MIG-19(F-6)를 베이스로 독자적으로 재설계 개량한 지상 공격기로 생산은 남창 항공기 제작소이다.



중국은 MIG-17/19의 라이선스 생산과 MIG-21의 카피 생산으로 전투기 부대를 육성해 왔으나 기체의 외부무장 탑재능력이 빈약하여 중소 국경분쟁 시 지상 작전을 지원할 공군력의 부족을 절실히 느껴왔다.

A-5는 중국의 대 소련 방위 전략에 따른 전력강화를 위하여 등장한 지상공격 전용의 기체이다.

주익, 미익, 후방동체는 기본적으로 라이선스 생산중인 F-6에서 전용하고, 저공에서 행동하는 공격기에 필요한 다량의 연료를 실기 위하여 동체를 약 25% 연장하고 공기 흡입구를 기체의 측면으로 옮겼다.

동체 아래에는 기내 폭탄창이 새로 설치되어 F-6과 다른 특징으로 되어 있다. 추기형은 폭탄창 내부에 연료탱크를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내 연료 탑재량은 F-6과 비교할 때 70% 이상 크게 늘어났다. 주익의 뿌리 부분에는 23mm 기관포 2문을 내장하고 있다. 또한 동체 아래의 4군데에 하드포인트가 설치되어 250kg급 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760L 보조연료탱크와 250kg 폭탄은 주로 주익 중앙 파일런에 장착한다. 주익 바깥쪽 파일런은 사이드와 인더급의 AAM을, 주익 안쪽 파일런에는 로켓탄 포드를 장착한다.

A-5M은 아에리탈리아의 협력을 얻어 AMX와 동급의 전천후 공격 시스템을 장비한 기체로 엔진을 추력 3,000kg(A/B 시 3,900kg)의 WP-6A로 강화하였고, 최대속도는 마하12이다. A-5는 중국 공군 이외에 파키스탄공군에 140대, 북한 공군에 40대가 수출되었다.

## AMX / A-1 [Italy, Brazil]

- 항공기명 : AMX
- 닉 네 임 :
- 전 폭 : 8.87 m
- 전 장 : 13.23 m
- 전 고 : 4.55 m
- 자 중 : 6700 kg
- 최대속도 : M 0.9
- 항속거리 :
- 탑승인원 : 1
- 개 발 사 : Alenia, Aermacchi, Embraer



AMX는 G91과 개량형인 G91Y를 개발한 알레니아사와 MB326시리즈를 개발한 아에르 마키사, 그리고 개발도중에 참가한 브라질의 엠브라엘사가 참가하여 2개국 3개사 형태로 개발한 2개국 공동개발 기체이다.

AMX는 반도국가인 이탈리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항공기술력이 결합된 독특한 대지/대함 공격기로서 동급 기체가 드문 모델이다.

G91의 후계기 개발계획은 1977년경에 시작되었는데, 예전부터 스웨덴의 사브사와 함께 B3LA를 개발하는 등 마키사는 충분한 개발경험을 쌓아왔다.

개발계획에서 스웨덴이 탈퇴한 후 B3LA의 개발 데이터는 AMX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기체의 외형은 일반적이며 특별한 특징은 없다.

기체의 규모는 프랑스의 슈퍼 에탕다르와 비슷하나 주익 면적은 육상기인 관계로 3/4에 불과하다. 주익의 애스펙트비는 4.70, 익근부에서 두께 비는 12%, 익단에서는 10%인 슈퍼 크리티컬형을 채택하고 있다.

실전에서 중요한 요소인 STOL 성능을 위하여 앞전에는 슬래트, 뒷전에는 대형 2중 간극 플랩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에일러론의 크기가 작아 롤제어에는 스포일러를 같이 사용한다.

스포일러와 방향타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수평미익과 보조익은 기계/유압방식을 사용한다.

수평미익은 승강타와 일체형인 스테빌레이터로 되어 있다.

유압은 2중 계통이며 단발기인 관계로 램 에어 터빈을 비상동력 장치로 사용한다.

외부무장은 5군데의 하드 포인트에 3.8t의 병기를 탑재할 수 있다.

무장으로는 각종 폭탄류 및 엑조세 대항 미사일을 운용한다. 기수에는 소형 레이더와 디지털 관성항법 유도 시스템을 장비하고 있으며 AMX의 항법 공격 시스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전자장비는 기수와 조종석의 뒤쪽에 수납한다.

콕피트 아래에는 기관포를 장착하는데, 이탈리아 공군형은 20mm 발칸포를 장비하나 브라질 공군기(A-1)에는 발칸포 장착허가가 나지 않은 관계로 30mm DEFA 기관포를 2문 장비한다.

한편 AMX는 공격임무 이외에 정찰임무에 사용할 것을 고려하여 팔레트형 정찰장비 팩을 동체 하면에 장착하도록 되어 있다. 단좌형 이외에 복좌의 훈련형인 AMX-T도 제작되었다. 복 좌형도 단 좌형과 같은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선 통제기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탈리아 공군이 200대, 브라질 공군이 100대를 조달했으며 해외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발주는 없다.

## AV-8 Harrier

- 항공기명 : AV-8
- 닉 네 임 : Harrier
- 전 폭 : 14.55 m
- 전 장 : 9.25 m
- 전 고 : 3.55 m
- 자 중 : 6,764 kg
- 최대속도 : M 1.25
- 항속거리 :
- 탑승인원 : 1 ~ 2
- 개 발 사 : Boeing/BAE Systems



BAE(British Aerospace)에서 개발한 수직이착륙(VTOL) 전투기로 영국 공군의 자존심이자 현재까지도 소규모 국지전에서 그 어떤 전투기도 따라올 수 없는 신속한 기동성과 생존력 그리고 엄청난 화력을 가진 전투기로 유명하다.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Harrier II Plus 는 F/A-18것과 같은 AN/APG-65가 탑재되었고, 신예 BVR미사일인 AIM-120

의 운용 능력이 부여되어 공중전에서도 더욱 놀라운 성능을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지형에서의 작전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는 공군기의 특성상 짧은 이착륙거리를 가지는 STOL(Short Take-off Landing)과 수직이착륙기능을 가지는 VTOL(Vertical Take-off Landing)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양산되어서 실전에 참가한 전투기는 해리어가 유일무이 할 것이다. 물론 구소련의 민스크급 항공모함 등에 함재기로 사용 되어온 Yak38 기종이 있기는 하나 이 전투기는 해리어의 모방형 일뿐만 아니라, 성능이 상당히 뒤떨어진다. 해리어는 두 개의 흡기구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엔진은 싱글 터보팬 엔진으로 모든 영국의 군용기들과 마찬가지로 롤스로이스사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이륙 시에 노즐들은 완전히 뒤쪽을 향하다가 노즐의 위치를 지상 쪽으로 변경하며 매우 짧은 활주거리로 기체를 이륙시킨다. 착륙 시에는 노즐의 변경속도를 보다 급격하게 움직여 수직 착륙을 시킨다. 한편 이 노즐들은 정상 비행 시에 급격한 속력 감소를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즉 해리어는 STOL과 VTOL이 결합된 STOVL(Short Take Off and Vertical Landing)기종이라 할 수 있다.

## B-1

- 항공기명 : B-1
- 닉 네 임 : Lancer
- 전 폭 : 23.84m(최소) ~ 41.67m(최대)
- 전 장 : 44.81m
- 전 고 : 10.36m
- 자 중 : 87,090kg
- 최대속도 : 마하 1.25
- 항속거리 : 11,890km
- 탑승인원 : 4명
- 개발사 : 로크웰



로크웰 B-1은 가변 후퇴날개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이다.

당초 B-52에 대신하는 기체로써 개발되어 원형 B-1A는 1974년에 첫 비행했으나 당시 카터 행정부의 인권과 냉전을 종식하려는 노력에 의해 양산배치는 보류돼 버렸다.

그러나 레이건 정권의 전략군 근대화 정책에 의해 개량형 B-1B의 양산이 결정되어 1985년부터 부대배치가 진행

되어져 현재 100기 정도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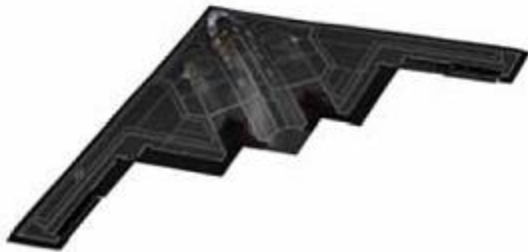
B-1B는 가변후퇴 날개에 의해 비교적 짧은 활주거리에서 이륙이 가능하며, 장대한 항속성능과 고속성능을 병행해 가졌으며 잘 갖추어진 레이더와 항법장치로 지형추종 비행이 가능하다.

전자 장비도 고도의 것을 갖추어 기체에는 전파흡수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 반사는 B-52에 비하여 1%밖에 없다고 전해지며 병장탑재량은 기내의 3개소 폭탄창만으로 34톤에 달해 단거리 사정 핵미사일 SRAM 8발을 장착할 수 있는 로터리 런처를 폭탄 창 내에 부착 가능한 것 외에 핵 폭탄최대 24발, 통상의 500포드 폭탄이라면 최대 84발을 탑재할 수 있다.

미국 전략항공군단(SAC)의 최신예기인 만큼 걸프전쟁에는 투입되지 않았다고 전해지며 이번 유고의 코소보 사태에 NATO의 개입으로 영국 공군기지에 약 10여기가 실전배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 B-2 Spirit

- 항공기명 : B-2
- 닉 네 임 : Spirit
- 전 폭 : 52.43 m
- 전 장 : 21.03 m
- 전 고 : 5.18 m
- 자 중 : 153,700 lbs
- 최대속도 : M0.85
- 항속거리 :
- 탑승인원 : 2
- 개발사 : Northrop Grumman(USA)



B-2 스텔스기는 후연기를 생략한 F118엔진 4기를 장착하며 기수에 AN/APQ-181J밴드 콘포말 레이더를 탑재한다.

B-2A의 항속거리는 16t의 무장을 탑재하고 고고도로 비행하면 탑재 연료의 효율성이 높아져 최대 11,667Km를 비행할 수 있다. 또한 전투지역에서 저고도로 비행할 경우에는 8,149Km의

행동반경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스텔스 폭격기 B-2A는 98년 현재 1개 비행대가 실전부대에 배치되어 있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지난 70년대 중반 카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 80년대 말 부시 정권에 이르러 그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라 고가의 스텔스 폭격기의 획득을 반대하는 의회 내 여론에 밀려 당초 도입계획 대수에 크게 못 미치는 21대만을 장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B-2A스텔스 폭격기는 수직, 수평 미익이 없어 기체의 시리얼 넘버와 테일 코드를 새겨 넣을 자리가 없다.

그 대신 메인 기어의 덮개부분에 새겨 넣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냉전의 막바지에 개발이 완료된 B-2A 스텔스 폭격기는 맞수인 소련의 붕괴 이후에도 양산 계획을 진행시켜 현재 획득/ 운용대수 21대라는 최소한의 기체를 가지고 1개 항공단을 창설하였다. 최근 B-2A스텔스 폭격기는 또 한 차례 걸프만 위기에 대응하여 실전투입을 고려하였으나 다행히 위기는 진정되어 그 성능을 검증할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다.

## B-52 Stratofortress

- 항공기명 : B-52
- 닉 네 임 : Straaatofortress
- 전 폭 : 185 ft
- 전 장 : 160 ft
- 전 고 : 40 ft
- 자 중 : 488,000 lbs
- 최대속도 : M0.90
- 항속거리 :
- 탑승인원 : 6
- 개 발 사 : Boeing(USA)



미국은 제2차 대전이후 재래식 폭탄, 순항 미사일, 전략 핵폭탄 등을 탑재하고 대륙간을 고공 침투하여 폭격하는 것이 전력 운용상 효율성이 있고 평시 전략적 억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은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1948년 7월에 발주하여 1952년 4월에 거대한 B-52 1호기의 시험비행에 성공하였고 1954년 평가시험용 B-52A형 3대가

생산되었다. B-52는 1955년부터 미 공군에서만 운용되었다. B-52 A, B, C형을 합해 88대, B-52D형 170대, E형 100대 및 F형 89대를 생산하였는데, 이상의 B-52 항공기는 모두 퇴역한 상태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B-52 G형은 193대, H형은 102대가 생산됨으로써 B-52의 총생산 대수는 742대에 이른다. B-52는 베트남전과 걸프전에 참가하였는데, 특히 베트남전에서의 용단폭격은 유명하다. 베트남전에서 B-52의 출격횟수는 총 124,500회로서 3,735,000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또한 최근의 걸프전에서 B-52는 재래식 폭격기로서의 우수한 성능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다.

걸프전에서 B-52 편대는 총 1,624회의 임무 출격을 통해 25,700톤에 달하는 72,000발의 무장을 쿠웨이트내의 지역표적, 이라크의 비행장, 산업시설, 병력 집결지 및 각종 저장시설에 투하하였는데, 취역한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B-52의 임무 가능률은 평시보다 2% 높은 85% 이상이었다. B-52 편대는 걸프전에서 미국이 투하한 폭탄의 29%, 그리고 다국적군의 38%에 달하는 무장을 투하하였다.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온 개조작업의 덕택으로 B-52는 여전히 효과적인 폭격기로 남아있다.



## F-117 NightHawk

- 항공기명 : F-117
- 닉 네 임 : NightHawk
- 전 폭 : 13.21 m
- 전 장 : 20.09 m
- 전 고 : 3.78 m
- 자 중 : 13,380 kg
- 최대속도 : M.95
- 항속거리 :
- 탑승인원 : 1
- 개 발 사 : Lockheed



F-117 스텔스기는 전투기보다 사실 공격기에 가깝고 분류를 나누자면 전 폭기에 해당한다.

기관포 같은 고정무장도 없고 공대공 미사일도 장착할 수 없는 별난 전투기지만 이런 병기를 장착할 필요가 아예 없는 전투기가 바로 F-117 나이트 호크이다.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을 도입하여 만들어진 F-117은 미

군의 항공 전력 중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전투의 기선을 제압하는 선제공격임무는 초저공 침투 장거리 공격기인 미 해군의 A-6E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이제 이러한 선제공격은 스텔스 전투기인 F-117A의 몫이 되었다.

1991년에 벌어진 걸프전에서 F-117A는 개전과 동시에 이라크군 통신지령센터에 레이저 유도 폭탄 공격을 가해 이라크군의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미국의 명문 항공사인 [록히드]사의 고도개발 부문(ADP)은 "스컹크 워크스"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으며, U-2나 SR-71 등 수많은 걸작기를 남겼다. 이 스텔스 워크스에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1976년경으로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절대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미 그들은 SR-71에서 레이더파 흡수자재(RAM)를 개폭 이용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었지만, 저공에서 운용되는 전술기의 경우에는 초고공에서 활동하는 SR-71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어려운 기술이 요구되고 있었다.

1974년에 미 국방부 고등연구 기획부에서 레이더 반사면적(RCS)을 대폭 줄임으로써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술기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각사에 요청하였다. 이에 록히드의 스텔스 워크스팀은 당시 록히드의 자동 데이터 처리부에서 새로 개발한 [에코 1]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면체화 방법을 사용, 이제까지의 항공기에 비해 RCS를 약 1,000분의 1까지 줄이는데 성공해 당연히 경쟁사보다 스텔스기의 개발에 대한 최고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미 국방부 고등 연구기획부로부터 스텔스기 원형기 2기와 그 테스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었다.

이 계획에는 [해브 블루]라는 코드 네임이 붙여졌고, 곧이어 미국 공군으로 넘겨져 극비계획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원형기는 현재의 F-117A에 비해 크기가 약 60%정도였지만 상당히 비슷한 외관과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계속적인 연구로 레이더 반사면적(RCS) 감소의 중요성이 기체의 세부 곳곳에 모두 해당된다는 점이 밝혀졌고, 특히 기어장치의 도어 등은 이륙 전에 틈새를 신중하게 조정해야 했고, 나사 하나에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수많은 실험결과 [해브 블루]는 E-3 공중조기 경보기가 근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 레이더로는 탐지 불가능, 그리고 지상 미사일용 레이더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최단 사정거리 안에서만 탐지가 가능했다.

[해브 블루]의 성공으로 1978년 11월 록히드사와 미 공군간에 안전규모 시험기(FSD)5기와 15기의 양산기 등 20기의 생산 계약이 맺어졌다. 또한 코드 네임도 [시니어 트렌드]로 변경되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FSD 1호기는 1981년 6월 18일 최초비행을 기록했다. 나머지 4기도 1982년 초까지 모두 비행에 성공했다.

극비에 붙여져 있는 이들 FSD기체는 모두 주의를 떼어낸 상태로 C-5 수송기로 [그롬 레이크]까지 운반되었고 비행은 모두 야간에만 실시되었다. 또한 그롬 레이크에서는 록히드의 F-117뿐 아니라 스텔스 폭격기인 노스롭의 B-2에 대한 실험도 실시되고 있었다.

엄중한 기밀유지 조치로 지상 작업원들은 인공위성이 그롬 레이크 상공에 있는 시간이면 반드시 기체를 커버로 덮어씌우도록 명령받았고, 기지의 시계안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들은 모두 강제착륙을 시키는 등 정말 바쁘게 보냈다.

그 무렵 신형 스텔스기인 시니어 트렌드의 제식명칭이 F-117로 결정되었다

## Xian Jianji FB-7

- 항공기명 : FB-7
- 닉 네 임 :
- 전 폭 :
- 전 장 :
- 전 고 :
- 자 중 :
- 최대속도 :
- 항속거리 :
- 탑승인원 :
- 개발사 : Xian Jianji(China)



중국공군과 해군항공대가 배치중인 FB-7 전투공격기는 한마디로 유럽의 재규어 전투공격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1 지원전투기와 기체형태 설계, 운용목적과 성능 등에 있어 공통점이 많은 기체이다.

우선 외형은 재규어의 수직 꼬리날개를 제외한 전부분의 형태가 같으며 또한 일본의 F-1 지원전투기와는 사실

상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기체의 규격이 틀릴 뿐이다.

FB-7은 1988년 영국의 판보로 에어쇼에서 개발 계획이 처음으로 공표되었다.

당시 중국 측은 전천후 복좌 전투폭격기 계획이라고 하였다. 서방측은 중국이 러시아의 Su-24 펜서와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갖는 기체이지만 가변익 보다는 후퇴익 주 날개에 전유동식의 수평안정판을 장착한 기체로 파악되었다.

판보로 에어쇼에서 발표된 FB-7의 첫 비행 시기는 1988년 말에서 1989년 초반 사이였으며 1992년에서 1993년 사이에 양산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계획은 지연되어 1995년 10월에 처음으로 TV뉴스시간에 개발 소식이 전해졌으며 1997년 중반에 해군항공대에 초기 작전운영기로 24대가 넘겨졌음을 공표하였다. FB-7의 엔진은 영국 롤스로이스사의 스페이 Mk202 엔진을 국산화한 과적 9형을 쌍발로 장착하며 공기흡입구는 동체 양측 면에 위치시켰다. 조종석은 2인승이다.

중국 측은 무장장착과 행동반경에 직접 영향이 있는 터보제트 엔진의 한계를 느끼고 개량형에는 연료효율과 추력이 향상된 자국산 터보팬 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기술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러시아의 Su-27 전투기의 엔진인 AL-31F를 장착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수부에는 A톤 공격기와는 달리 지형추적기능이 있는 공대지 공격용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어 저공 침공비행이 가능하다.

탑재무장은 주 날개 아래 4개소의 하드 포인트에 C-801 대함 미사일 2발과 보조연료탱크 2기를 장착할 수 있다. 주 날개 끝단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전용 런처로 사용하며 기수에 23mm 2연장 기관포를 장착한다.

## H-6 Xian

- 항공기명 : H-6
- 닉 네 임 :
- 전 폭 : 34.19 m
- 전 장 : 34.80 m
- 전 고 : 10.36 m
- 자 중 : 38,530 kg
- 최대속도 : 1,050 km/h
- 항속거리 : 4,297 km
- 탑승인원 : 6
- 개 발 사 : Xian(China)



중국은 미국, 러시아에 이은 폭격기를 운용중인 세 번째 국가로서, 구소련의 Tu-16 배저 중거리 폭격기를 카피한 H-6 폭격기가 주력이다.

H-6은 구소련의 투폴레프 Tu-16 배저를 라이선스 생산하기 위해 1958년부터 초기형인 배저 A형의 생산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중소대립으로 소련의 기술자들이 모두 철수하는 바람에 중국 독자적으로 생산준비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H-6 폭격기가 실용화 된 것은 약 10년이 흐른 1960년대 후반이었다. 기체 사이즈는 미군의 B-47 스트라토 제트 폭격기에 필적하는 대형으로서, 대 출력의 쌍발 엔진을 각각 동체와 주익의 접합부에 장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전후퇴각은 2단(내익 41도 외익 37도)으로 변화하며, 내익부의 뒤쪽으로는 보기식의 랜딩기어가 장착되어 있다. 중국은 H-6 폭격기를 각국 항공쇼에서 도 공개한 바 있으며 최신형인 H-6IV 중국이 독자 개발한 신형 레이더의 탑재로 기수 하면의 레이돔이 더 커졌다.

무장은 고정무장 23mm 기관포 7문, 최대 폭탄 탑재량 9t 정도이고, 구소련에서 일찍 대함 미사일 장착형을 개발한 선례에 따라 기술적으로 별문제 없이 중국 군에서도 주익 하부에 C601 공대함 미사일 2발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H-6폭격기의 생산은 1980년대 말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배치대수는 120대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중국은 Tu-16을 사용하는 이집트에 스페어 부품을 수출한 바 있으며 이라크에 4대를 수출하였다. 이들 이라크군의 H-6은 걸프전쟁 중 모두 파괴되었다.

## Jaguar [Britain, France]

- 항공기명 : JAGUAR
- 닉 네 임 :
- 전 폭 : 8.69 m
- 전 장 : 16.83 m
- 전 고 : 4.80 m
- 자 중 : 10,954 kg
- 최대속도 : M 1.6
- 항속거리 :
- 탑승인원 : 1
- 개발사 : Sepecat (Dassault / BAe)



재규어는 유럽대륙에서 전면적인 정규전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영국과 프랑스가 국제 공동으로 개발한 지상 지원 차단공격용 공격기로 북해에 나타난 함선을 공격하고, 적 전투기의 방해를 돌파하며, 전선의 풀밭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는 STOL 성능을 지니고 있다.

재규어 S 양산형(GR.1)은 기수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장착하며 수직미익

의 앞전에 레이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프랑스군의 재규어 A형과 구별된다.

재규어 인터내셔널은 수출형으로 고온고지에서의 추력 저하를 보충하기 위해 엔진을 아도어 Mk 804(추력 3,650kg) 또는 아도어 Mk 811(추력 4,200kg)으로 파워 업하였으며, 아게브 레이더를 장착하고 ASM 미사일을 운용한다. 재규어는 영국 공군이 203대, 프랑스 공군이 200대를 채용한 이외에 나이지리아 및 오만이 Mk 804 장착형 각 12대씩 채용하였고, 오만은 Mk 811 장착형을 12대 추가하였다. 인도는 최대의 재규어 수입국가로 Mk 804 장착형을 40대 수입하고, 45대를 자국에서 조립 생산하였으며, 31대를 라이선스 생산하였다. 재규어는 개발 초기에 영국 공군과 프랑스공군의 고등 훈련기로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기체의 고성능화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양국 모두 훈련기로서의 사용 계획을 중지하고, 복좌형은 전 환훈련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재규어는 항법 시스템이 각기 다른 것이 특징인데 영국은 INS를 사용하는데 비하여 프랑스는 자이로와 도플러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다. 30mm 기관포 2문(탄약수 각 150발)과 폭탄 등 최대 4,500kg을 무장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총 450여대를 생산 사용국은 France, India, Nigeria, Oman, UK 등이다.